

‘화훼농가 돕기’ 장미 완판...농가 웃음꽃

강진군·전남도·지방우정청 협업 3만5000송이 반나절만에 소진

강진군과 전남도, 전남지방우정청이 협업해 추진한 화훼농가 돕기 특별판매 행사가 온라인 판매 개시 반나절 만에 장미 3만5000송이의 물량이 완판됐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3개 기관은 졸업식·입학식 등 최대 성수기인 2~3월 대목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감소, 환파에 따른 난방비 상승 등이 겹쳐져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화훼농가 돕기 노마진 특판’ 행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전남도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와 강진군 온라인쇼핑몰 ‘초록민음’, 우정청 쇼핑몰인 ‘우체국쇼핑’에서 동시 판매된 장미 3만5000송이 모두 인기리에 판매, 조기 품절됐다.

특히 이번 완판 성과는 배우 김수미 씨를 모델로 앞세우고 동시에 택배비·포장재를 지원해 장미 10송이(1단)를 1만1900원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농가 돕기에 나선 결과다.

조우철 평생화훼법인 대표는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청자골 강진 장미를 전국에 알리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강진군과 전남도, 전남우정청이 협업한 ‘장미 사주기 특판행사’가 개시 반나절만에 완판됐다. 사진은 모델이 ‘청자골 장미’를 들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와 환파로 어려운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행사 이후에도 전남도 농수축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닦

칠 때마다 발 빠르게 나서 농어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어린이 등·하굣길 ‘가방 안전커버’로 지켜요”

나주시, 초등학교 신입생 전원에 1300개 지원...교통사고 예방

나주시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의 교통안전을 지켜줄 특별한 선물을 한다.

나주시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가방 안전커버’ 1300개를 지난 23일 나주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눈에 잘 띄는 형광색으로 제작한 커버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이나 빗길에 보행 중인 어린이를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커버 디자인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숫자 30’을 크게 표기했다.

여기에 실용적인 방수처리가 돼있어 폭우와 폭설에도 가방이 젖는 것을 막아준다.

나주시가 지원한 ‘가방 안전커버’는 교육지원청이 개학에 맞춰 각 학교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미래 주역인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함께 자발적인 선진교통질



지난 23일 강인규(왼쪽 두번째) 나주시장이 김영길(# 세번째)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어린이 가방 안전커버를 전달했다. <나주시 제공>

서 확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사지말고 입양을...유기동물 가족 만들기

담양군, 5일장서 캠페인

담양군이 유기견 입양문화 활성화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에 나섰다. <사진>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13만여마리이며, 이 중 담양에서는 284마리가 발생, 2018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담양군은 지역 내 동물보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동물판매장이 이뤄졌던 담양 5일장에서 입양 캠페인을 했다. 펫티켓과 동물보호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공유했다.

담양군은 현장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을 확인한 후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와 수술비용 25만원 중 60%인 15만원을 지원, 입양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과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복지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장성군 “맞춤형 교육 나선다”...평생교육협의회 출범

평생교육 계획·운영 협의 조정

서비스 중복·교육 사각지대 해소

장성군이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 맞춤형 평생 교육과 정보 소통에 나선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의회, 장성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장성군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발족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장성군의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자문기구다. 장성군은 앞서 지난해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했다.

협의회는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서비스 중복, 교육 사각지대 발생, 정보소통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협의회는 평생학습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7대 중점사업과 전략 등을 수립했다. 7대 사업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성인문해교육 운영 ▲행복학습센터 조성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등이다.

장성군은 지난해 12월 구축한 평생학습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 정보들을 폭넓게 제공할 방침



장성군은 군의회,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최근 발족했다. <장성군 제공>

이다. 또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마을단위 평생학습공간(행복학습센터) 조성과 평생학습 활동가 모임인 ‘평생학습동아리’를 중점 육성한다.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문해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성군은 지난해 3급 문해교육사 24명을 양성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협의회는 궁극 목표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사랑상품권 판매 재개...10% 할인

1인당 판매 한도 50만원

장성군이 일시 중단했던 지역화폐 판매를 재개했다. 장성군은 원활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잠시 중단했던 장성사랑상품권 판매를 25일부터 재개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소진 시까지 10% 할인 판매도 실시한다.

하지만 기존 100만원이던 1인당 판매 한도를 50만원까지 대폭 축소했다. 상품권 사제기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다수의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일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다음달 5일 출시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사랑상품권 판매 재개로 여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경기 부양을 도모하겠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난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